



미 증시,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도, 기업 호실적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7 일(수) 미국 증시는 금리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스냅(-34.6%) 주가 폭락에도, 달러 약세 전환 속 포드(+6.1%), TSMC(+4.7%)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4%, S&P500 +0.8%, 나스닥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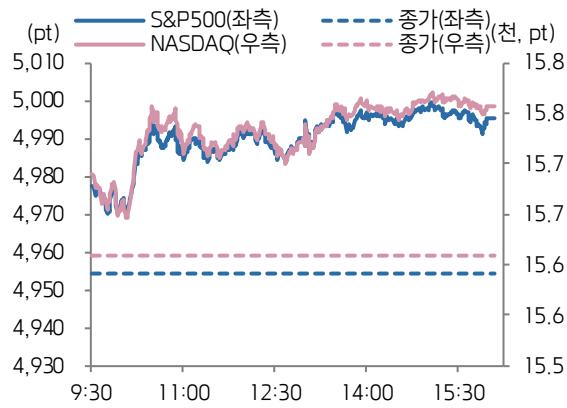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내 2~3 회 인하가 적절하다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를 너무 이른 시점에 내리면 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 향후 정책 결정은 인플레이션에 달려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한다면서, 8 주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데이터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 쿠글러 연준 이사는 현재까지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만족스러우며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냉각된다면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플레 하락이 정체되면 현재의 금리를 오래가져 갈 필요가 있다고 밝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이하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인 투자부적격으로 강등. 상업용 부동산 폭락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금융 위험과 지배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이번 등급 강등의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상황이 더 악화시 추가적인 강등을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

중국 국무원은 우칭 전 상하이시 당 부거기를 신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수장으로 임명. 증감회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자 중국 증시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감독 관리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금번 수장 교체를 놓고 주요 외신에서는 최근 중국 증시 폭락과 관련있으며, 이번 분위기 쇄신을 통해 증시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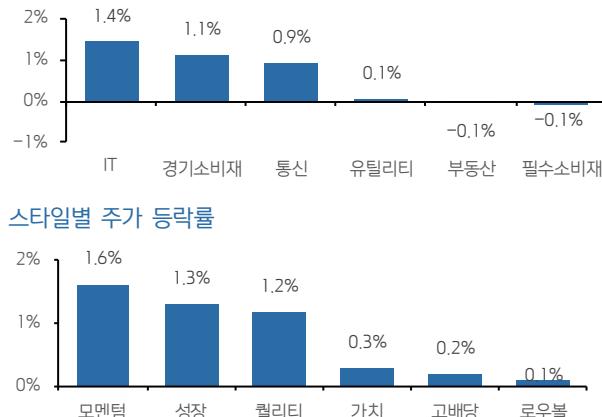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은 7 일 특별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때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밝힘.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해야 하며, 이 종 조세와 관련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609.58 | +1.3% | USD/KRW | 1,327.61 | +0.02% |
| 코스피 200 | 352.25 | +1.28% | 달러 지수 | 104.06 | -0.14% |
| 코스닥 | 811.92 | +0.61% | EUR/USD | 1.08 | +0.01% |
| 코스닥 150 | 1,274.65 | +1.19% | USD/CNH | 7.21 | -0.03% |
| S&P500 | 4,995.06 | +0.82% | USD/JPY | 148.13 | -0.03% |
| NASDAQ | 15,756.64 | +0.95% | 채권시장 | | |
| 다우 | 38,677.36 | +0.4% | 국고채 3년 | 3.290 | -0.1bp |
| VIX | 12.83 | -1.76% | 국고채 10년 | 3.382 | -0.2bp |
| 러셀 2000 | 1,950.36 | -0.17% | 미국 국채 2년 | 4.429 | +2.5bp |
| 필라. 반도체 | 4,408.73 | +1.62% | 미국 국채 10년 | 4.121 | +2.1bp |
| 다우 운송 | 16,076.12 | +0.42% | 미국 국채 30년 | 4.325 | +2.5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678.85 | -0.26% | WTI | 74.06 | +1.02% |
| MSCI 전세계 지수 | 740.68 | +0.47% | 브렌트유 | 79.38 | +1.01% |
| MSCI DM 지수 | 3,244.51 | +0.34% | 금 | 2050.3 | -0.05% |
| MSCI EM 지수 | 999.86 | +1.68% | 은 | 22.28 | -0.88% |
| MSCI 한국 ETF | 63.28 | +1.77% | 구리 | 373.55 | -1.2%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6.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저 PBR 업종 내 순매매 전개 가능성
2. 미국 디즈니의 실적 호조 및 시간외 강세
3. TSMC 1 월 매출 YOY 7.9% 증가 및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안정된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 포드, 우버, 디즈니 등 기업 호실적이 지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우려가 확산. 핵심은 1) 무디스의 뉴욕커뮤니티 뱅코프 신용 등급 하향, 2) 미 부동산 리스크가 유럽으로 전이될 가능성 제기.

전일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2 단계 강등. 또한 영국 런던 금융 중심지 내 오피스 빌딩이 종전 매매가보다 60%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보도, 지난주 도이체 방크의 실적발표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유럽으로 확산 우려가 제기.

신용등급 하향 직후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월 5일 현재 총 예금이 830 억 달러로 12월 31일의 814 억 달러보다 늘어났으며,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상황. 또한 뉴욕커뮤니티 뱅코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부문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뉴욕 사무실 및 다가구 부동산 대출 비중이 30%를 상회하며 타 은행 대비 높은 편. 작년 3월 SVB 사태 이후 뉴욕커뮤니티 은행이 SVB를 인수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는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손실이 가중.

다른 대형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 1월 24일주 미국 소형은행 대출, 예금은 각각 150 억 달러, 110 억 달러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점 감안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실적시즌 이후 재료 소멸시 부동산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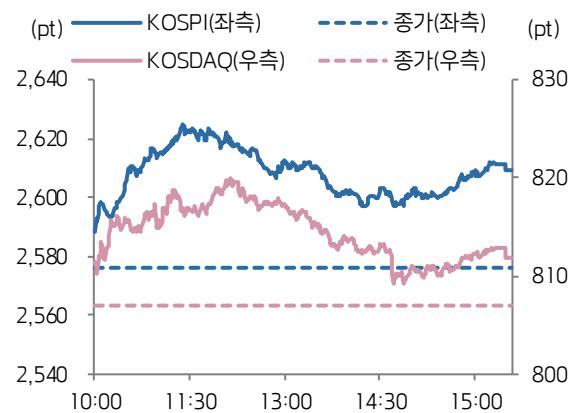
7일(화) 국내증시는 전일 미증시 강세 및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강세 보인 중국 증시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반등에 성공, 2,600pt 약착. (KOSPI +1.30%, KOSDAQ +0.61%)

금일에는 TSMC 1 월 매출 YOY 7.9% 증가 및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M7 중심으로 강세 보인 미증시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금주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8,300 억원으로 운수장비, 금융, 보험 업종 순매수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에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이마트 등 저 PBR 주 플레이 지속. 반면 기관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적어도 총선이 예정된 4월까지 저 PBR 주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PBR 1 배 이하 업종 중 1) 연초이후 (-)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철강(PBR 0.53 배), 에너지(0.56 배), 건설(0.52 배), 비철목재(0.86 배), 운송(0.68 배), 필수소비재(0.9 배), 2) 12Fwd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1개월내 상향된 업종은 운송, 유트리티, 증권,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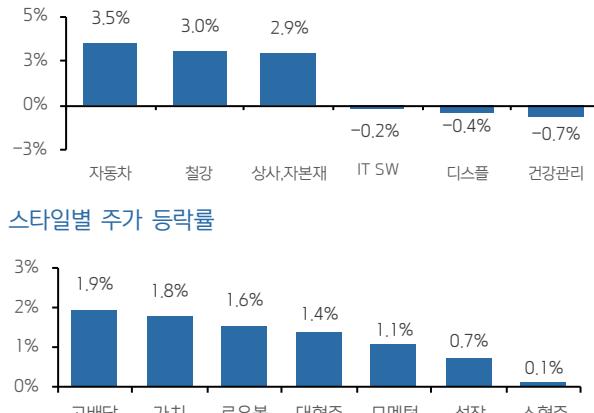
고 PBR에서 저 PBR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 AI, 의료기기 등 기존 주도주 중 과매도 구간에 근접한 종목 다수. 소외 업종에도 관심 가질 필요 있지만, 금일 옵션 만기일 및 외국인 자금 흐름과 반대되는 개인의 수급 변동성(코스피 9,000 억원 순매도, 코스닥 1,3000 억원 순매수) 감안 시 코스피 대비 매력도는 저하. 전일 이차전지주 강세 요인 역시 저 PBR 장세에서 소외된 데 따른 과매도 인식, 에코프로 1:5 액면분할 공시 및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 보도로 인한 쓸림에 기인. 그러나 이차전지주들 대부분 장중 고가 대비 상승폭 축소 마감했기 때문에 강세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스닥 상장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코스닥의 코스피 키맞추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화 방안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천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